

NEWS LETTER

2021년 9월 27일 Vol. 418

동국대학교의료원 건학위원회 출범 발족식 개최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9월 15일 일산병원 5층 대강당에서 동국발전 건학이념을 구현할 법인 산하 건학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 큰스님, 건학위원회 상임최고위원 돈관 큰스님을 비롯해 동국대학교의료원 채석래 의료원장, 일산병원 권범선 병원장, 건학위원회 관계자와 교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의료원 건학위원회는 신행, 의료, 대학, 기금 등 4개 분과로 나눠 의료 협력 사업을 확대해 환자와 교직원을 위한 신행 프로그램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동국대학교의료원 건학위원회 채석래 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의료원 건학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병원 및 대학이 합심해 진료, 연구, 교육, 신행 및 지역사회 봉사에 정진해 나갈 것”이라며“동국대학교의료원은 새로운 조직구성을 통해 여러 단계를 뛰어넘어 건학 이념에 부합하는 훌륭한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1년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보건의료노조 동국대학교병원지부는 지난 9월 15일 병원 4층 임상과장회의실에서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권범선 병원장과 보건의료노조 박노봉 부위원장을 비롯해 노사 양측 13명이 참석했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올해 1.3%의 임금인상과 장기근속수당지급, 명절 연휴 온콜 격려금 지급, 대학 학자금 지원금 인상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사항이 개선됐다. 또한 병원원은 코로나19 격려금 지급, 코로나 위험수당 지급 등 위험수당을 신설해 직원들의 근무조건 및 처우를 개선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권범선 병원장은 “어려웠던 협상 과정을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노사 모두가 상생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병원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앞으로 병원 경영 성과에 따라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비인후과 김진엽 교수, ‘수면무호흡증’ 인공지능으로 수술성공여부 예측가능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비인후과 김진엽 교수 연구팀이 지난 7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수술 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의 이번 연구는 기계학습을 통한 알고리즘을 개발해 환자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수술에 대한 성공여부를 예측하는 것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김진엽 교수는 “폐쇄성 수면무호흡 수술에서의 적절한 환자 선택은 중요하지만 어려운 과제인데, 인공지능이 수술 성공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인공지능 성능을 더 발전시킨다면 의사와 환자가 수술 전에 예측된 수술 성공률에 대해 인지하고 최적의 치료방법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의 자매 국제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 (Scientific Report)’에 2021년 최근호에 게재됐다.



동출 스님 불서 기증

솔바람 출판 대표 동출 스님이 지난 8월 31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부처님의 생애 등 불서 140여권을 기증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동출 스님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법당 지도법사 능지 스님이 함께했다. 동출 스님은 20여 년 동안 설법연구원과 솔바람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설법전서’, ‘마음을 밝히는 60가지 이야기’, ‘백유경’ 등 70여권의 책을 발간했다. 지도법사 능지 스님은 “귀한 불서를 보시해 주신 동출 스님께 감사드린다”라며“기증해 주신 불서는 부처님의 자비 나눔 정신을 느끼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병원을 내원하는 환우 및 스님, 교직원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